

靈樞 陰陽二十五人篇 知人法에 나타난 인식과 사고방식의 형성요인에 대한 體質構成論的인 고찰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및 한의학 연구소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mposition of the Formative Factor for Cognition and Thought Process in the Cognition of Man in the Yin Yang Twenty-Five Type Man of the Young Chu

Gyeong 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mposition of the formative factor for cognition and thought process in the cognition of man in the Yin Yang twenty-five type man of the Young Chu makes up the deficiency of economic-social factor beginning wit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The constitutional composition of the formative factor for cognition and thought process in the cognition of man the Yin Yang twenty-five type man of the Young Chu are interpreted the Yin type man -preponderance characteristic. The Chinese social delineation in the Yin Yang twenty-five type man of the Young possess the characteristic of the Yin type man - preponderance.

Key words : constitutional composition, cognition and thought process, Yin Yang twenty-five type(陰陽二十五人), Young Chu(靈樞)

서 론

모든 문명 사회는 하나의 편향된 발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이 형성한 사회가 이번에는 도리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각종 제도권적인 습관이나 가치관, 세계관들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되고 제도의 노예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관찰하는 知人法의 내용 역시 각 지역마다 偏重 偏向된 요인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방 임상 특이인 변증시치는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체생리 개체병리론에 의거하여 펼쳐진다. 著者は 그동안 변증시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체생리 병리론을 바탕으로 하는 望診 위주의 전신 형태를 중요시하는 知人法에 대한 연구를 내경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¹⁻³⁾.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자는 內經에 나타난 전신형태 관찰에 기본으로 내재하는 認識과 思考方式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으며,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形成要因에 집중하게 되었다.

다양한 유형체질론에서 전개되는 한의학의 知人法은 학문속의 인간과 현실속의 인간을 연결하는 공고한 가교를 설치한 것으로써, 인간들 간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생활주변의 경험정보들을 인간학으로 끌어들이어 체계화하고 유형체질인마다 다른 음양론적인 도덕론, 수신론을 펼칠 수 있는⁴⁾ 음양론적인 방법론이다. 따라서 중국 등의 동아시아적인 인식과 사고방식의 형성 요인에 관련하여, 黃帝內經 靈樞의 二十五人論에 나타난 全身形態의 觀察를 통한 知人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 범위로 삼아서 자료를 고찰한 바, 흔히들 말하는 인식과 사고방식의 주요한 형성 요인이라는 경제적, 지역적 접근 외에 체질구성론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관계와 타협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적인 認識과 思考方式의 특성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고의 체계에서 다르다면, 태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ckim@deu.ac.kr, · Tel : 051-850-8649

· 접수 : 2004/07/09 · 수정 : 2004/08/16 · 채택 : 2004/09/20

도, 신념, 가치, 선호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에서 나타나는 문화간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생각의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인간은 天地 氣運을 편벽되게 타고나므로 모든 인간 문명은 하나의 편향된 발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이 형성한 사회가 이번에는 도리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각종 제도권적인 습관이나 가치관, 세계관들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제도의 노예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관찰하는 知人法의 내용 역시 각 지역마다 偏重 偏向된 형성요인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사회 구조에서의 차이, 그리고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자기 개념에서의 차이는 그들이 사고 과정과 사고 내용에서 보이는 차이와 일치한다⁵⁾. 즉, 동양 사회의 집합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은 세상을 보다 넓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과 통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수없이 많은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같은 논리로 서양 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은 개별 사물을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어 분석하는 그들의 접근법 또는 사물들을 다스리는 공통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사물의 행동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과 통한다.

1)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적인 특성

개인간의 관계를 중시했던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했다⁶⁾. 개인은 특정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 그리스인 등의 서양인들에게 행복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이 권력이나 가족의 권위에 한없이 휘둘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우선이었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한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의 인간 상호간의 관계 중심적인 태도는 서양사회의 개인 활동적인 인격체 중심과 비교하여 볼 때, 陰 偏重 偏向 社會의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중국등의 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애정을 보이지만, 외집단이나 그저 아는 사이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 그들은 자신이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끼고, 그들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자신과 내집단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며, 내집단원이나 외집단원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개방적인 행동 원리를 따른다. 이도 또한 중국 등의 동아시아적인 陰 偏重 偏向의 사회 구성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 개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이 된다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다. 동양과 서양의 자기 개념의 차이는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 등의 동아시아인들은 그러한 착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이도 또한 陰 偏重 偏向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자기 개념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태도는 陰 偏重 偏向의 특성을 타나낸다.

이런 상호관계 중시는 교육차원에서 잘 반영된다.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훈련은 아이들의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아이들은 늘 어머니와 붙어 다닌다. 어머니와의 친밀성을 평생 동안 유지하고 싶어 한다. 반면에 서양의 아이들은 독립성에 대한 훈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면 심하게 반항한다. 동양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의존적 단서들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의존적인 사람이 되도록 유도되고 있고, 서양인들은 독립적 단서들을 통해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늘 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면 독립적 단서에 노출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게 되고,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지내게 되면 상호의존적 단서에 점화되어 상호의존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양의 독립성 교육이 陽 偏重 偏向의 태도라면,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 교육은 상대적으로 陰 偏重 偏向의 태도라고 판단된다.

2) 타협의 태도

동아시아인들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전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긴다.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성취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광을 의미하나, 서양인들이게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업적을 의미한다.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동아시아인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간관계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인간관계를 회색해서라도 정의의 추구를 한다.

동양인들은 위계질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집단의 통제를 수용하지만, 서양인들은 형평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선호한다. 동양인들은 모순과 논쟁을 회피하지만 서양인들은 법률, 정치,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논쟁을 끌어들이는다. 이처럼 논쟁보다는 타협을 중시 여기는 태도는 동아시아의 陰 偏重 偏向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2. 인식과 사고방식의 형성요인에 대한 생태환경론적인 경제 사회적 접근

서양문화의 근원인 그리스와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인 중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의 근거를 흔히들 지역적 생태 배경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활동 형태라고 한다.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다. 두 문화 상이한 생태 환경은 서로 다른 경제적·사회적 체제를 초래했다는 것이 인간 사고의 문화적 근원에 관하여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⁹⁾.

동시대의 어떤 문화보다도 개인의 자유, 개성, 객관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그리스 문화의 특성은 그리스의 독특한 정치 형태, 즉 도시 국가 형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저항적인 지식인들은 한 도시를 피해서 자유롭게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개인의 자유로운 지적 탐구가 가능했다. 이런 고대 그리스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해안가라는 지

리적인 위치이다. 그리스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중요한 산업 수단으로 삼았다. 그 덕분에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지닌 상인 계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 상인 계층의 교육열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상 그들은 다른 사람, 다른 관습, 다른 사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체계와의 접촉은 자연히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차이, 즉 모순을 해결하는 陽의인 활동적인 상업중심의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고대 중국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이 매우 강했다. 중국의 인종적 동질성은 상당 부분이 중국의 중앙집권적 정치 권력에서 기인한다. 그와 더불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촌락 생활은 조화와 화목을 중시하는 행위 규범을 만들어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는데다가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가는 위로부터 혹은 동료들로부터 심한 제재를 당했던지라, 중국인들은 서로 다른 주장들 중 더 타당한 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거의 없었다. 대신에 불협화음을 없애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는 즉 중용의 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자연 환경은 대체로 평탄한 농지, 낮은 산들, 항해가 가능한 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하였고,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했다. 농경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화목한 생활이었다. 특히 쌀농사의 경우에는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사람들 간의 화목은 관개 공사의 경우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 관개 공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북부의 황하강 골짜기 지역이었다. 관개 공사는 이웃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유도하게 되는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했고, 자기 부락의 연장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지역의 권력자들은 다시 왕이나 황제의 지배 하에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그들의 생태 환경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사회적 제약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의 두 문화에서 사고방식의 기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여러 가지로 차이를 나타내며, 두 사회의 생태 환경이 경제적인 차이를 가져왔고, 이 경제적인 차이는 다시 사회 구조의 차이를 초래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는 환경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의 방식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낳고, 이는 다시 지각과 사고과정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들이 사람들의 인지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면⁹⁾,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농경 사회의 사람들은 수렵이나 사냥 사회 같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장의존적이고, 전통적인 농경 사회 사람들이 현대 산업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장의존적일 것이라고 하며, 또한 수렵과 사냥을 하는 사람들과 현대 산업 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장독립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식과 사고과정의 형성요인으로 생태환경에 의거한 경제사회적인 구조에 따른 문화적인 근원을 지적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그리스적인 인식과 사고형성의 특징은 해안가라는 지리적인 생태환경과 이로 인한 상업과 교류의 발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며, 동질성을 중시하는 중국적인 인식과 사고형성의 특징은 중국 서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대륙적인 정착된 농경사회 문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꾸준히 형성된 다민족 문화이며, 단순한 정착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실크로드와 유태인에 비견되는 華裔 등의 사례처럼 상업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생태환경에 근거한 경제사회적인 구조 특성에 따른 인식과 사고과정 형성의 요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저자는 認識과 思考方式의 形成要因에 관한 생태환경에 근거한 경제사회론적인 입장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의 개체성을 중시하는 體質構成論의인 견해를 內經 全身形態 知人法의 내용을 통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3. 靈樞 陰陽二十五人篇 知人法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체질 구성론적인 접근

木形人은 발생 기능을 형상하므로 勞心으로 心勞하기 쉽고 多憂하여 근심이 많으며 外勞於事하여 일에 열심이라고 하나⁷⁾, 마음으로 애를 쓰는 것과 걱정이 많은 것을 관찰해보면 土金水人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 목형인에게 노심과 걱정을 많다고 판단한 것은 상대적인 관찰 결과로 陰의인 토금수인에게는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목형인의 특성이 마치 心勞하고 걱정이 많은 것으로 비춰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적인 인식과 사고과정의 陰 偏向의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火形人은 추진 기능을 取象하여 기운이 위로 쏠리기 때문에 火勢猛하므로 疾心으로 성격이 급하고, 火有氣勢也하므로 有氣하여 기백이 있으며, 火性易發而不聚也하므로 輕財로 저축보다 소비를 잘하며, 火性不常也하므로 少信하여 신용이 적으며, 火色光明也하므로 好顏하여 안색이 긍정적이고 불임성이 있다. 火性急也 火勢不久也하므로 急心不壽暴死하여 조급한 성미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는 수가 많다고 보았으나⁷⁾, 성격이 급한 것은 목화인 뿐만아니라 금인에게도 자주 관찰되는 것이며, 火人에게서 기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火人이 절대적인 기백의 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토금수인의 陰의인 경향성을 가진 관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火人의 행동과 생각이 기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또한 소비를 잘 한다는 것도 들여놓기를 잘 하는 陰 편중적인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을 것이며, 신용이 적은 것으로 관찰한 것도 상대적으로 말이 적거나 말수가 없는 陰의인 사람의 상대적인 관찰의 내용이며, 불임성이 있는 안색이라는 것도 불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陰 偏重 偏向人의 관찰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조급한 성질로 인하여 사고로 폭사한다는 관찰 내용에서는 토금수인 등의 陰 편중 편향인들의 陽 편중인인 火人에 대하여 상대적인 비난서린

평가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보아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가 陰 偏重偏向인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火人 등의 陽 偏重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회였다면 급심으로 不壽暴死라는 관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 보아 중국 등의 동아시아적인 인식과 사고 과정의 음 편중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木人 火人의 관찰 내용으로 살펴보면, 內經에서 관찰한 사회는 陰人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土形人은 통합 기능을 취상하여 土之體肥이므로 圓面하여 얼굴은 둥글며, 土之體厚이므로 美肩背하여 견배가 보기 좋고 균형이 잡혔으며, 土之體潤大하므로 大腹하여 배가 풍만하고 土之體肥也 土主四肢也이므로 美股脛하여 팔다리의 살집이 좋다. 土本大 亦可以小也 土盛在中也이므로 小手足하여 손발이 날씬하여 크지 않다. 土主肉이므로 多肉하여 살집이 좋다. 土自上而下 其體如一也이므로 上下相稱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이 조화롭다. 體安重也이므로 行安地하여 행동이 안정된다. 土揚之則浮也 氣舉之也이므로 舉足浮하여 밝은 기법고 경쾌하다. 土不輕動하므로 安心하여 마음이 풍족안정하다. 土以生物爲德也이므로 好利人하여 타인에게 친절하다. 土能容垢納污 不棄賤趨貴也이므로 不喜權勢 善附人也하여 권세를 좋아하지 않으며, 타인의 의견에 잘 따른다⁷⁾. 이처럼 토형인에 대한 평가는 앞의 목화인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무릇 사람의 관찰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다 잘 파악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점은 목형인 화형인의 관찰 내용이 단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토형인의 경우에는 美肩背로 균형이 잡혔고 美股脛하며, 더구나 상하의 신체가 균형이 맞다고 하며, 그래서 행동이 안정되고 마음 또한 풍족 안정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토형인은 앞서의 목화인과는 경우가 다르게 장점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陰 편중 편향의 사회를 구성하는 陰人 중심 사고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토형인을 실제로 관찰해보면, 많은 경우에서 작은 키의 언발란스와 실사 큰 키라 하더라도 어깨 다리 등의 신체 부위가 살찐 것이지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게 관찰된다. 그러면 왜 토형인은 이렇게 관찰되었을까? 바로 陰 편중 편향된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의 인식과 사고 과정의 경향성 때문이며, 이런 陰 편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은 토금수의 음인이 다수를 점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토형인이 타인에게 친절하며 권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 친절의 정도를 관찰해보면, 陽的인 목화인도 친절하나 陽的인 친절의 내용을 나타내므로 陰 편중 편향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친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陰人들의 陰的인 친절 내용은 마치 더 더욱 친절함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권세의 추구도 실상 관찰해보면 토금수의 陰人들의 갈구이나, 그들의 陰的인 특성상 들어내 놓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특성과 체면 체통을 중시하는 음인들의 인식과 사고 과정의 음적인 내용으로 살펴볼때, 자신의 권세 추구의 발과 행위를 쉽게 표출하는 목화인 등이 권세를 손쉽게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다시한번 陰人 위주의 사회 구성이라는 점과 인식과 사고과정의 陰人 편

중편향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金形人은 억제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각진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의 형상이며, 金之體 冷而廉靜 不染他汚也이므로 身清廉하여 성격이 깨끗하고, 金性至急也이므로 急心하여 성급하며, 金之性不動則靜 動之則悍也 金主肅殺有威也 有斧斷之才也이므로 靜悍 善爲吏하여 가만히 있을 때는 평온한 듯 하나 행동시에는 마음이 급하고 사무직인 공무원 벼슬에 맞다고 하여⁷⁾ 지나친 장단점 위주의 서술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음양의 어느 한쪽으로 편중 편향된 태도를 지양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 편향된 태도에서 벗어나 비교적 합당하게 관찰된 내용은 금형인의 세분 관찰 내용에서 토형인의 설명에서 나타난 敦敦然하여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로 堅實貌가 다른 4가지 금형인의 형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⁸⁾ 잘 알 수 있다. 內經의 관찰이 금형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음 편중 편향적인 사회에서 金人이 陰과 陽의 경계 영역인 속성을 발현한 까닭으로 판단된다.

水形人은 침정 기능을 취상하여 水決而不可渴也이므로 不敬畏하여 任性趨下 不向上也하니, 위사람을 경외하지 않으며, 水性不實也이므로 善欺給人 戮死하여 水無恒情 故多厄死한다⁷⁾. 이처럼 수형인은 위사람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살해되는 수가 많다고 하나, 그러나 위사람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목형인 화형인 등의 陽人들의 양적인 경향성으로 판단되며, 수형인이 살하지 못하여 룩사 액사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陰的인 토금수인들이 의심하는 특성의 연장선에서 자기자신 끼리의 신뢰구축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오형인을 중심으로 內經의 전신 형태 지인법에 나타난 인식과 사고과정의 특성과 형성요인은 陰 偏重 偏向的인 特性을 보이고 있으며, 體質構成論的으로 陰人 중심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

靈樞 二十五人篇에 나타난 知人法의 내용을 통하여 中國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적인 認識과 思考 方式의 形成要因에 대하여 體質構成論的인 考察을 시도하였다. 체질구성론적인 고찰은 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인식과 사고과정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형성요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內經의 五型人에 대한 인식과 사고과정의 형성에 대한 체질론적인 요인에 대한 관찰에서 전체적으로 陰偏重的인 특성을 보였으며, 이로 보아 內經에서 관찰한 중국사회의 체질구성론적으로 土金水 陰人 중심의 양상을 가졌으며 이로 인한 지인법의 특성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5호, 2002.
2.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십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2004.
3. 김경철 외2인,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

- 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2호, 2004.
4. 황태연, 사상체질과 리더십, 도서출판 들녘, 2003.
 5.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6. 김광중, 한의학의 이론과 형성, 일증사, 1990.
 7. 홍원식 편찬, 정교 황제내경 영추,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